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3월 27일(금)
...(율력 3월 4일)...

Пятница
27 марта 2020г.
№ 12(11687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25일은 러시아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이다. 사할린주일반과학 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부(부장 강순자, 사진 중심)의 일부 직원들. 관련 기사 2면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및 쿠릴 고령의 주민들 격리 조치

65세 이상의 사할린 지역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정부 기관장들과 자치체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연금 수급자들에게 음식 및 의약품 외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 방식을 운영해도를 계획이다. 노약자들은 집을 나가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세대의 주민들은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취약한 연령대이므로 따라서 '사할린 장수' 기획의 소모임 및 수업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지금까지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을 위협한 질병으로부터 잘 보호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지사가 전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코로나19 검역소가 개설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우선적 검진을 해야할 대상은 급성 호흡기질환, 독감, 및 폐렴 환자이다. 또 한 달 기간 내 해외를 다녀온 사할린 주민 및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위해 이동 진단팀이 파견된다.

블라디미르 유슈크 사할린 지역 보건부 장관은 "특별히 불안함과 공황에 빠진 주민들은 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 사할린 주민 2명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등록되었는데 현재 노워시비르스크 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전에 이들과 접촉한 118명 모두 급속 진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의심 환자로 3명이 있다고 전해졌다.

감염된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전염병 병동에 머물게 된다. 돌린스크 중앙 병원에는 200개의 병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부병 및 성병 병동에 80개의 병석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철도원' 휴양소에는 100개의 병석이 마련되어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모든 대규모 행사 금지를 비롯해 극장 및 영화관, 박물관도 폐관한다.

의료기기와 보호장비 구입을 위해 지역 예산으로 6천만 루블리를 배정받았다.

지역 보건부 핫라인 8(800) 300-65-03 또는 1-300 이후 추가 8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 교육부에서는 원격 재택수업을 위한 특별 핫라인을 8(4242) 72-24-14로 개설했다.

사할린 및 쿠릴 노년세대의 주민들은 8(800) 201-00-99 번 전화를 통해 사회복지사들과 연락이 가능하다.

사할린, 한국 코로나19 극복에 나서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과의 투쟁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대한민국 적십자사에 보내기로 지난 11일 공표했다.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금된 성금 3900달러(295750루블리)는 한국적십자사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모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표명했다. 10일간 펼쳐진 모금활동에는 마카로브·우글레고르스크·빅코브·홈스크 등 지방한인회, 주이산가족협회·주 한인 여성회, 주 씨름협회, 동포들이 운영하는 기업(<사라> 건설회사, <아르세날>회사, <소와-2012>회사, 이태출 개인기업인 등),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모금 거의 마지막 날에 모금을 알게 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와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들도 주 한인협회 사무실을 찾아 모금을 전했다.

새고려신문사로 연락한 코르사코브한인회 관계자는 특히 김준희·예금주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근골격계 장애인으로서 성금을 한 예금주 씨의 아름다운 마음이 감동을 주었다. 코르사코브한인회는 또한 동포들과 함께 한국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루만체와 갈리나에게도 박수를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수) 모금활동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할린주 한인협회를 전채련 할머니(89)이 찾아와 기부하겠다고 기금을 전달했다.

여러 지방의 많은 동포어르신들이 모금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너무 고맙다."며 "무리될까 봐 어르신들의 마음과 모금의 일부만 받도록 했다."고 하고 "성의가 담긴 우리 모금이 모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단신

푸틴 대통령, 전국 '일주일 휴무' 선언

지난 25일(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일주일 휴무'를 선포했다.

휴일은 오는 토요일인 28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인 4월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휴무에 들어간다. 약국, 은행, 교통, 식품을 파는 상점 등은 계속 영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4월 22일 예정된 개헌 투표 역시 연기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투표 날짜는 상황 파악 후 정하기로 했다.

세웨로쿠릴스크 근처 지진 발생

지난 25일(수) 13시 49분에 세웨로쿠릴스크(파라무쉬르 섬) 220킬로미터 떨어진 수역 59km 깊이에서 7.5도 지진이 발생했다. 세웨로쿠릴스크에서 진도는 약 5도였다.

지진으로 인해 해일(쓰나미)이 발생해 50 cm파도가 세웨로쿠릴스크에 15시 15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이미 중앙병원 근처 산에 대피한 길로 전해졌다.

예비결과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파괴 건물은 없고 25개 건물에서 난로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3월 26일, 학생 원격 통신수업 시작

3월 25일에 사할린 학생들의 봄방학이 끝났다. 3월26일부터는 학교학생 수업은 통신을 이용한 재택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사들은 재택통신수업을 익히도록 돕는 현대적 교육방식을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무료 교육자료 목록은 지역 교육품질평가센터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rcoko.ru>)에서 제공한다.

새로운 수업방식은 전자 통신교육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개별 활동과 숙제 감독까지 고려했다.

올해 사할린 학생 선발팀은 전국학생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는 5월12일 이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들은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4월6일부터 사할린대학은 재택통신수업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월 25일은 러시아 문화 분야 근로자 날

도서관 사서직은 내게 운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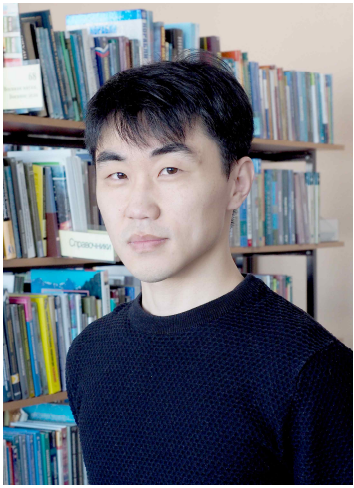
사할린주 도서관 직원 김상애·최애순·안 드미트리 씨 소개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 날로 기념한다. 이 날을 앞두고 필자가 직원들 소개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통합도서관서비스부의 강순자 (강 엘레나 미하일롭나)씨는 자신이 맡은 부서에는 4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한인 동포인 **김상애, 최애순, 안 드미트리** 도서관원(사서) 세 사람을 적극 추천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만나 도서관 사서로서의 이모저모들을 알아보았다.

안 드미트리, 1급 정사서, 1985년생(우글레고르스크 구역 샤희초르스크시 출신).

"도서관 사서직은 사실 우연히 일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9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이사했거든요.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학대학 산하 리체이를 마친 후 바로 이 경제법률정보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제학과였는데 전공은 회계였어요."라고 드미트리가 자신의 소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가지를 해보기도 했는데 마음에 드는 일은 찾지 못했어요. 어느날 주일반과학교서관에 도서관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번 해볼까'란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가 2012년 1월이었어요. 면접 인터뷰에서 도서관 관장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죠. 그후로 8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말리체와 관장은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라고 했다.

사실 도서관에서는 수십년 만에 남성 사서 고용은 정말 아주 드문 사례였다. 가장 하급의 일반 도서관원으로 시작한 드미트리는 현재 1급 정사서로 활약하고 있다. 도서관에 입사한 해에 드미트리는 결혼했고 두 아들(6세, 3세)을 두기도 했다. 사서로 활동하기 위해 여러 교육과정도 밟았고 현재 사할린에술전문학교 도서관학과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중이다.

사실 임금이 넉넉치 않아(현재 조금 나아졌음) 사서직을 포기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곳 동료 사이에 관계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일도 마음에 들어 지속적으로 일할 마음이라고 한다. 자기 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열람실 업무, 책 대여, 정보 수집, 도서관 이용자 등록·접수 등이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 등록·접수 일은 개인정보와 관련 돼 있어서 그런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드미트리는 사서직은 마음에 드는 일이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최애순(엘비라 이와노브나), 수석 정사서, 1962년생(코르사코브 출신).

최애순 씨는 도서관원이 되겠다는 꿈을 학교 9-10학년 때 키웠다고 한다. 그 당시 실습을 학교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이다. 책도 좋아하고 도서관 분위기가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비로비드잔 문화계몽전문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코르사코브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하바롭스크국립문화대학 도서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결혼해서 1988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하고 사할린주 직업연맹 도서관에서 근무했었는데 경제위기로 도서관이 문이 닫히고 사할린주일반과학교서관에 입사했다. 이 도서관에서 최애순 씨는 이미 26년째 일해오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활동교육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2012년에 도서관은 이용자가 점점 적어지는 위기에 닥쳤다. 도서관 이용자들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도서관은 <중이 판타지>공예활동교실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이 교실은 <루코젤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 회원들은 주 2회 모이며 그외 도서관에서는 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연금자들을 위한 공예 교육과정,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주위 사람>장애인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매주 실시한다. 이 모든 교육과정 담당자가 바로 최애순 수석 사서이다. 물론 그외 사서로서 해야 할 업무도 꼼꼼히 하고 있다.

겸손한 성품을 지닌 애순 씨는 사서란 직업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다고 한다.

김상애(타치아나 유리에브나), 수석 정사서, 1957년생(돌린스크구역 브즈모리에 마을 출생)

김상애 씨는 사서가 된 것은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졸업반 때 부모님은 무국적자였다. 자녀들을 위해 소련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 미성년자인 김상애 씨의 서류도 부모님의 서류와 함께 접수되어 신청한

지 1년이 지나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그동안 김상애 씨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여권이 없어서 대학 입학도 못하고, 취직도 못했었다.

"언니가 알아본 정보를 통해 저는 졸업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2중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가 교장선생님에게 취직을 부탁했어요. 교장이 저를 봐주고는 일하도록 허락했지요.

모교 도서관에서 1년간 일하면서 이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두 가지 있는데 약사 또는 도서관 사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련 국적을 취득한 후 하바롭스크국립문화대학 도서관학과에 입학하여 무사히 졸업을 한 후 사할린으로 돌아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어린이도서관으로 파견되어 거기에서 거의 12년 도서관 해제자로 일해왔습니다."라고 김상애씨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당시 김상애 씨의 현재 주요 업무는 신문, 잡지, 내용을 읽어보고 분석, 주요 내용 기록하는 일이었다. 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있던 타마라 트로피모바 다닐렌코가 주일반과학교서관 관장으로 부임하고 어느 날 주 도서관에 스카우트 제의를 하자 이에 응한 김상애 씨는 이미 28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물론 전문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도 했다.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항상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김상애 씨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업선택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도서관원이란 직업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직업이고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며 독서들과 교체하고 새로운 것 얻을 수 있다."는 김상애 수석 사서의 말에 그의 동료들도 공감했다.

훌륭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세 분은 성격도 분명 다르고 좋아하는 계절도 다르고(김상애 씨 - 가을, 최애순 씨 - 겨울, 안 드미트리 씨 - 여름), 정직과 성실을 높이 평가하며 무엇보다 공통된 점은 장기간 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이곳 분위기를 좋아하고 직업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계몽업무를 즐기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푸틴 대통령,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 수당 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

2020년 3월 20일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녀를 둔 가정 지원에 대한 국가적 추가 조치'령에 서명했다. 이는 크레mlin.ru(kremlin.ru) 사이트에 공지되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매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은 지역에서 확정한 생계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각 가정에 지급된다.

보조금의 규모는 아동을 위한 지역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는 약5500루블이며 사할린주에서는 2019년 4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 생계비가 16,256루블리에 해당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매월 8,000 루블리가 지급된다. 사할린 지역에서 이 보조금은 5천 가구 이상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각 가정에 3세-7세의 아동이 몇 명

이든 보조금은 각 아동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보조금 지급은 2020년 6월1일부터 시작된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ыплате ежемесячных пособий на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20 марта 2020 года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Он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kremlin.ru. Документ вводит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на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Согласно президентскому указу, на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каждый месяц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пособие. Выплату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лишь семьи с доходом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утвержденного в регионе. Размер пособия составит 50%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ребенка. В среднем это 5500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мер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детей на 4-й квартал 2019 года равнялся 16256 рублям.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ит более 8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среднем регионе ее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свыше 5 тысяч семей.

Важный момент: если в семье несколько детей от 3 до 7 лет, пособие положено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Выплаты начнут поступать с 1 июля 2020 года.

사할린주 실업자 수 감소 및 적극 청년 채용에서 노동부 실적 5위에 올라

사할린 주는 채용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에 있어 극동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가 통계를 조사한 결과다. 이 부서의 평가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 전 지역 중 5위를 차지했다. 주 정부가 전하는 바로는 채용시장의 일반적인 상황,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채용 서비스의 이미지적 특성을 고려한 통계라고 한다.

지표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전국 순위 상위에 올랐고 주민 중 적합한 직업을 찾고자 채용센터를 방문한 실업자의 비율은 2위를 차지했으며 기업 종사자의 비율도 선두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사할린 실업자 7명 중 1명이 채용센터에서 분야에 따른 자질 향상과 훈련 및 재교육을 받았다.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 86개 행정지역 중 사할린주는 4위를 차지하고 노동부로부터 14세-18세 연령의 청소년 임시 고용의 성공적 사업도 인정을 받아.

(8면에 계속)

사할린에 청소년 테러리스트 구속

사할린 기술전문학교를 무장 공격 대상으로 계획했던 청소년 2002년생과 2003년생 두 명을 체포했다. 대학생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탄총, 사냥 소총, 탄약 및 수제 폭발장치를 발견했다.

연방 보안국은 미성년 사회연결망으로 대규모 살상과 테러리즘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연방 형법 '테러 활동 실행의 공개적 선동' 조항에 따라 이들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보안국 사이트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대규모 살상 실행 계획을 보안수비대가 막아내 구속한 가운데 보안 수색대는 이들 청소년들의 일기장에서 기술전문학교의 직원과 대학생들에 대한 무장 보복을 준비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소셜네트 워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살상과 자살, 테러리즘을 선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3월 사할린 지역 어민들 명태1만7396톤 어획

사할린·쿠릴 지역 수산청에 따르면 연초부터 사할린주의 기업들이 해양생물 채취에 착수해 총어획량이 15만4503톤에 달했다.

주요 어획종은 전례대로 명태가 10만 6437톤에 달했다. 3월에는 태풍과 활발한 유빙활동이 이뤄지는 바다에서 사할린의 선박들은 명태 1만7396톤을 어획했다. 청어잡이는 양이 많지 않은 총 672톤에 달했고, 올 초부터는 청어잡이로 총 8170톤을 잡았다. 오호츠크해에서는 대구 양식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구잡이는 보통 1만1642톤으로 지난해 유사시기에 비해 6천 톤이 증가했다. 주요 어획이 세웨로쿠릴스크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게잡이는 올 초부터148만836톤, 새우는 1,807톤에 달한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찾을 수 없어도 잊을 수 없는

스물셋에서 스물 다섯까지 복무했던 군 부대에 제대하고도 두어 번 면회를 갔다. 내가 살던 남쪽 광주에서 휴전선 바로 밑까지 기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는 데 나를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있다.

여자친구는 내게 이삼일에 한 번씩 정성 들여 편지를 보냈다. 기갑학교까지 서너 달 훈련을 마치고 전방의 전차부대에 배치될 무렵에는 편지가 수십 통이 되었다.

여자친구의 편지는 마법처럼 나를 웃고 울게 했다. 차곡차곡 쌓이는 편지만큼 사랑도, 그리움도 깊어졌는데 불현듯 보안 검열이 나온다는 예고가 왔다. 그동안 모은 편지를 모두 태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결코 태울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어둑할 무렵 부대 뒷산에 올라갔다. 비에 젖지 않도록 편지 뭉치를 꿈뿔 비닐로 몇 겹이나 싸서 돌더미 속에 묻었다. 검열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게 특이한 돌을 세워 표시도 해뒀다.

며칠 뒤에 다시 편지를 찾으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돌밭은 넓고도 넓어서 표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제대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돌밭을 헤맸다. 편지가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며 울고 있을 것 같았다.

제대한 뒤에도 시간을 내서 순대와 치킨과 수박을 사가지고 면회를 갔다. 후임들이 맛있게 먹는 동안 다시 돌밭을 헤맸어도 편지는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새로운 편지들이 계속 이어져 전처럼 아프지는 않았다.

가끔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그 편지들이 문득 떠오른다. 예전에는 내가 찾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도 찾지 못할 거라고 안심을 했다. 나이를 먹으니 너무 오랜 세월이 가기 전에 누군가 발견해 줬으면 싶기도 하다.

그 사람이 갓 입대한 이등병이었으면 좋겠다. 스물세 살,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가 정성들여 쓴 편지를 읽고 웃어주었으면, 그렇게 사랑받은 나를 부러워했으면, 만날 수 없는 자기 사랑 생각에 눈도 뜨거워졌으면, 그러다가 담배 한 모금에 힘을 부쩍 냈으면 좋겠다.

이십 년 넘게 숨어있는, 여전히 살아있을 편지가 두 번 좋은 일을 하게 말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2020년 10월, 전 러시아 인구조사

전 러시아 인구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4천만의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발생하여 2020년 인구조사는 대규모 변화를 평가하도록 하고 러시아 사회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보 출처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조사 기한과 방법 - 전 러시아 인구조사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지역 주민의 모습, 주민 수, 지역에 따른 주민 분포, 사회 및 경제적 분포, 인구통계적, 언어적 특징의 분포다.

인구조사의 새로운 실시 방안은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조사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 25일까지 국가 포털 인터넷 통합 서비스망에서 본인과 가족의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전자 인구조사 양식을 갖춘 컴퓨터 앱을 이용하는 조사자를 통한 인구조사.

한 달 간 다기능센터와 <내 문서> 지방 서비스센터에 배치된 조사 구역에서 하는 조사.

2020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사자 활동의 특정 항목을 위해 주거지 감독 순회가 실시된다.

인구조사는 신뢰와 기밀을 유지한다. 인구조사는 자발적 활동으로 조사 참가자들에게 강제나 별도의 질문에 강요할 수 없으며그 어떤 불편함이나 억압을 가하지 않는다. 인구조사 결과는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국가와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이 국가를 평가하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인구조사 양식이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 내 영구 거주자는 30개 질문에 답하고 외

국민으로서 임시 거주자는 7개 질문이 제시된다. 질문의 내용들은 2010년에 비해 수정되거나 추가된 항목도 있다.

질문들은 실제적인 현대 생활과 2010년 인구조사 후 개정된 법안의 요구에 맞추어져 있다.

근로 임금, 기업가의 소득, 자영업, 연금,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제시된다. 소득의 규모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 항목이나 서류 확인 없이 <근로 임금>, <연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교육>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질문을 교정했다.

사할린주의 2020년 인구조사 준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에 동일하게 실시된다.

경제에 초점을 둔 항목은 인구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우선적 과제 중 하나다.

이 조사의 결과는 사회, 소방, 의료 및 주민들에게도 필요하다. 2020년9월1일까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초점을 둔 경제 절차에 주의를 돌려 단점을 제거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인구조사에는 조사자 1,200여 명이 필요하며 조사자들 배치를 위한 145개의 거처가 필요하다.

사할린 통계청은 인구조사를 위해 연령 18세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민사계약을 맺고 인구조사 요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및 상담 전화: 사할린 통계국 43-41-79 , 43-45-01 .

다가오는 인구 조사의 표어는 "미래를 창조합시다!"이다.

(사할린주통계국 자료에서)

연초부터 사할린의 40가구 사회적 계약 체결

연초부터 사할린 주(州)의 40여 가구가 사회적 계약을 맺었다. 사할린 지역은 올초부터 사회적 계약의 일환으로 최소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중 저소득층의 주민은 매달 교육 및 보충교육, 기업 활동, 자영업의 개발에 1만-2만 루블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이전과 같이 연간 최대 24만 루블리를 일시불 형태로 제공한다. 이런 유형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도록 촉진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의 조건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타결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3개월에서 1년까지 생활 형편의 곤경으로부터 가정이 벗어나기까지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

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 2014년부터 사할린 지역에 이 기획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기획의 참가자들은 1780 가구에 이르며 총 3억5천만 루블리 이상을 지급했다. 사회적 계약은 평균적 가구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원 조치의 주요 특징은 수급자들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의지로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생활고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고 사회보호부 사할린 지부장인 갈리나 쇼코토와가 강조했다.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각 거주지의 사회적 지원센터부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한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2020년 1월-2월 사할린주 통계 현황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지역 총생산액은 1,873억 루블리로 2019년 1월과 2월 대비 105.7%이다. 산업 생산물은 1,795 루블리로2019년 유사시기 대비 106.1%에 해당, 석유를 비롯한 액화가스 생산은 330만 톤으로 2019년 유사시기 대비 0.8% 감소,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62억m³에 달했고, 사할린주 석탄기업들의 생산량은 석탄 170만 톤으로 이 시기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어류 및 수산물 어획량은 13만1200톤으로 전년 대비 114.9%에 해당, 가공량은 10만1400톤으로 전년 대비 128.7%에 해당됐다.이 시기 동안 사할린주에는 전체적으로 전력, 증기, 온수, 침엽수 목재, 어류 통조림, 압축 저장 생선, 발효유 제품, 치즈, 트워록, 유제품, 육류 반제품, 기초 식자재, 버터, 마카로니, 제과, 맥주, 미네랄워터, 무알콜 음료 생산이 증가했다.

주 축산업 분야에서는 2020년1월과 2월 전년 대비 소의 마릿수는 15.2%, 암소의 마릿수는18.5% 증가했고 평균 암소 1마리당 착유량은 1.6% 증가했다.

2달간 사할린주에서는 주택사업 실시로 3만6200m² 건설, 이 중 2만1600 m² (59.7%)는 자산 및 유치된 자금으로 건설했다. 주민들의 자체 개별적 및 용자를 낀 주택 건설은 1만4300 m²로 총 주택 건설량의 49.5%에 해당된다. 2020년 이 시기에 '건설' 경제 업종에서 성취한 작업량은70억 루블리로 전년 대비 108%에 해당.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03.95%에 해당했다.

이 시기에 올해 소비시장에서 도매무역 거래율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일반 식품은 18.4%, 소매상품은 4.4% 거래율이 증가했다. 유료 서비스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2020년 2월 말 사할린의 국가 채용기관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1,590명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올해 이 시기에 사할린주의 출생아 수는 490명, 사망자 수는 580명, 자연적 인구 감소는 9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лагодарит неравнодушных в судьб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пожертвования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ОО Строительная фирма «Заря»
 ООО УК ЖУ-9
 ООО «Арсенал»
 ИП И Те Чуль
 ООО «Сова - 2012»
 Корсак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Ким Дюн Хи
 Макар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Холм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Углего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До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Поселок Сокол
 ИП Ким Ги Ен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сирым
 РО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СОО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ТРК «Сахалин «Уримал Бансон»
 Поронай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Быков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Танцев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Тен Ча Рен
 Ким Сун Дя
 Ю Е Ни
 Чан Тхе Хо
 Ро Ден Сен
 Кан Сун Дя
 Пак Ден Ок
 Пак Ден Ай
 Ким Ден Гир
 Пак Нон Сун
 Ким Хон Ди
 О Тин Ха
 Зен Сун Дя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о было собрано 295 750 рублей. Была приобретена валюта 3250 долларов США (по 74 руб.16 коп., что составило 244 270 руб.) и 650 долларов США (по 79 руб. 21 коп., что составило 51 486 руб.50).

Все комиссионные сборы,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еводом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взяла на себя РООСК.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12 сл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слово «доширак»?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день местного ЕГЭ закрывают аэропорты? Зачем молодые корейки кривляются и сюсюкают?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ичего не скажут прямо, а плохие новости сообщают вечером? И с чего это кореец называет свою жену «нашей»?

Автор Мария Рязанов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8)

Преподнося слишком дорогой, обязывающий подарок, вы также рискуете нагрузить человека тяжелым ощущением *лудам*. Чтобы приободрить и успокоить участников школьного ил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онкурса, говорят что-нибудь вроде: «Не нагружайте себя (ощущением *лудам*), а просто получит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участия». В ответ 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ответить «Не за что, я ничего особого не сделал», чтобы благодарящий перестал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обязанным. Са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 его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конструкциями, позволяющими выражать мысли мягко, некатегорично и ненавязчиво, стремится к минимизации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лудам* в каждом высказывании.

12. Тосирак 도시락

Ланч-бокс, обед в контейнере, взятый с собой из дома

У этого слова особая истор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 все россияне знают «Доширак» как лапшу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днако *тосирак* (или, если точнее передать произношение, «тоширак») — это то же, что «ланч-бокс» в английском или «бенто» в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то есть обед, упакованный в коробку с отделениями и секциями и взятый с собой на работу, на пикник или в поездку. Как правило, в *тосирак* входят порция риса и несколько закусок к нему, включая острую квашеную капусту *кимчи* — то есть такая еда, которая не портится быстро. Фраза «Мама дала сыну в школу *тосирак*» вовсе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мать кормит ребенка растворимой лапшой, а, наоборот,



Ким Хон До (Танвон).

Обед.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VIII — начало XIX века

국립중앙박물관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Кореи)

говорит о ее заботе. А что же с «Дошираком»? Название лапши и прямоугольная форма коробк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ивычной лапши в бумажных стаканах) должны были вызывать ассоциацию с любовно приготовленным домашним обедом. Продукт впервые вошел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осирак» по аналогии с англий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ей Dosirak, но позже был принят более благо-

звучный для русского уха вариант, который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нарицательным названием для любой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вошел в ряд устойчивых выражений. Например, «питаться дошираком» означает «плохо питаться либо не иметь достаточных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Интересно, что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рынком экспорта для производителя лапши «Доширак» — продукт популярен у нас чуть ли не больше, чем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Источник: <https://arzamas.academy/mag/787-korea>

Южная Корея вводит тест на COVID-19 для всех, кто въезжает из Европы и РФ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вторного проникнов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и об ужесточении контроля на границе.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из Европы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проходят тест на COVID-19. Если же граждане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намерены прожить в Корее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то они будут помещены на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Все эти меры касаются также и т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явили,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ужесточить контроль на границе. Поводом для этого стало резко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за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Европе. Это вызвало опасения, что въезжающие из ЕС могу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вторую волну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21 марта власти РК обнародовали новый пакет мер, который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с 00 часов в воскресенье 22 марта. Коснулись

новые меры пока тех, кто прибывает из стран Европы, включая и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В итоге с воскресенья все, кто въезжа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из Европы,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полноценный тест на COVID-19. Если анализы покажут заражение, то больные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тациона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роме того,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из Европы и намерены прожить в Корее более 90 дней, а также сами граждане РК, обязаны также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Если у въезжающего иностранца есть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е, то он или она должен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карантине там, где живет, а если нет жилья, то будет помещен в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властями Кореи стационары.

Те же, кто намерен пробы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течение короткого срока, то есть 90 и менее дней,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двухнед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но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а на COVID-19 должны будут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ежедневно сообщать о своем состоянии местным медикам, которые будут обзванивать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ей РК пояснили, что в понятие «прибывающие из Европы» включаются также и те, кто въезжает с территории РФ. Поэтому новые меры касаются также и россиян,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граждан третьих стран, если они прибывают в Корею из РФ.

Чиновник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предупредили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равил поведения, введенных в связи с COVID-19,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тран могут принудительно депортировать. Как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осслужащих,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дома, разгуливали по улицам, подвергая опасности заражения други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2019 в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61,85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и в 2019 году 61 млрд 85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21% превысило показатель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ост произошёл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ёт увели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со стороны финансовых и страховых компаний. На долю США пришлось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зарубежных инвестиций - 23,9%. В США инвестировано 14 млрд 770 млн долларов — на 32,4% больше, чем в 2018 году.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Китай увеличились на 20,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5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еспечит условия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еспечит условия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риск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выборам. Центральн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омиссия обещ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участников голосования и соблюдение 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ав. Избирателей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изывают находиться в помещениях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в защитных масках. На вход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измер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после чего избиратели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дезинфицировать руки и надеть специальные одноразовые перчатки. Члены избирательных комиссий должны следить за тем, чтобы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избирателями превышало один метр. Избиратели, чья температура превышает 37,5°С или у которых наблюдаются симптомы респиратор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пециальные участки. Ранее Центризбирком попрос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править на участки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25 млн защитных масок. Пациенты с COVID-19, проходящие лечение в больницах и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также находящиеся в домашнем карантине, смогут голосовать по почте, если они подадут заявление в период с 24 по 28 марта.

ЦТАК: 21 марта в КНДР проведены испытания «так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яемого оружия»

21 мар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наблюдал за испытаниями «так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яемого оруж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2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тметив, что цель испытаний заключалась том,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такт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мощность новой системы оружия, которая будет поставляться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ак сообщает ЦТАК,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испытания новейшей системы вооружений, разработанно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оторая, как отметил Ким Чен Ын, «внесёт решающий вклад в реализац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а по коренному изменению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21 марта 6:45 и 6:50 по кор. вр. КНДР произвела с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пуски двух реактивных снарядов,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являются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ближ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Они пролетели около 410 километров, достигнув максимальной высоты 50 км. Это были третьи по счёту с начала года ракетные стрельбы в КНДР. Предыдущие имели место второго и девятого марта, и за ними,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также наблюда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РК и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ют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ой торговле

РК и Россия приступили к очередному раунду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в сегментах услуг и инвестиц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четырёхдне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роводят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из-за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и вируса COVID-19. Ранее две страны провели три раунда переговоров. В ходе предыдущего раунд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в Москве,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заключить соглаш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ходе нынешнего раунда стороны согласуют ключевые статьи документа,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последствии РК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отдель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глашению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Евразийс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юзом,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ят Россия, Армения, Белоруссия, Казахстан и Киргизия.

Все 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омочь им справиться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Ли Чжэ Мён, в апреле каждый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получит по 100 тысяч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80 долларов. Население провинции составляет 13 млн 640 тыс. человек. Ранее власти городов Тэгу и Сеула решили оказать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танет перв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единицей в стране, где всем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жителя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одинаковая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RKI)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жертвовать 30% зарплаты на борьбу с COVID-19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в ближайшие четыре месяца будут перечислять 30 процентов своей зарплаты в госказну в фонд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на помощь тем, кто серьёзно пострадал от вспышки COVID-19.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в секретариат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Южной Кореи, отмети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в з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еуле. В заявл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этом движении участвуют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Чон Се Гюн, министры и заместители министров, а также все чиновник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тдельных ведомств, которые по рангу приравнены к министрам и замминистра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чти треть зарплаты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отдавать на борьбу с COVID-19 как минимум до июн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озможно, что данная акци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ся и далее среди госчиновников и политиков Кореи. О своем решени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анному шагу уже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енсана Ким Гён Су. Впрочем, Ким тут 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бы подобный шаг не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добровольно-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акцией" для госслужащих невысокого ранга, которые почувствуют себя обязанными последовать примеру начальства. "Я бы не хотел, чтобы кто-то из подчиненных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обязанным. Чиновникам среднего и нижнего звена и так непрост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 написал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и Facebook Ким Гён Су.

Некоторые депутат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также заявили о своем присоединении к кампании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COVID-19, жертвуя до половины жалования на эти нужд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ОЗ: РК совершила прорыв в проведении тестов на COVID-19

В ВОЗ корейский опыт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тестов на выявление COVID-19 назвали настоящим прорывом, заявив о том, что принимаются усилия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этого примера в качестве образца для принятия мер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18-го март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ОЗ Тедрос Гебрейесус в ходе видео-брифинга из штаб-квартиры организации в Женев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пышку, начавшуюся в РК месяц назад, страна не сдалась, а оперативно разработала инновационную стратегию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я и расширила лабораторные мощности.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 РК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снижения скорос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благодаря тщательному отслеживанию лиц, вступавших в контакт с заражёнными, и помещению в карантин людей с подозрением на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Гебрейесус сообщил, что ВОЗ предпринимает меры по применению знаний, извлечённых из опыта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Корея, в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находящихся под угрозой. По его словам, спустя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чёные исследовали генетическ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COVID-19 начались первые испытания вакцины. Многие стран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сравнения ещё не утверждённых методов лечения.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Швейцария, Испания и Франция объявил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KBS World

В РК введены в действие специ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правила для госслужащих

22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народовало специаль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правила д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ни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15 дней, по 5 апреля,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Правил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сотрудниками, проведение совещаний и зарубеж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ованы гибкий график нахождения в офисах и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ы в удалённом режим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правит официальные письма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 фил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 просьбой отложить пуб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кращает до минимума перемещения заключё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вводи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отпуска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роходящих срочную службу. Данные меры применяются также к сотрудникам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або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библиотек, музеев, концертных залов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ы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Ежедневные брифинги для прессы о ситуаци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начиная с 23 марта, проводятся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Журналисты могут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Kakao Talk.

KBS World

В РК сниж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коэффициент вступления 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брак составил 4,7 случая на 1.000 человек.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1970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ся сбо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таких изменений называют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35 лет,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вступают в брак, а также новая тенденция в обществ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молодёжь не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и офи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вступления в первый брак составил 33 года среди мужчин и 30 лет среди женщин. Оба показателя немного выросли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Количество разводов выросло на 2%, составив 110,8 тыс. случаев.

KBS World

В РК поколение бэби-бумеров предпочитает интернет-шопинг

В РК поколение бэби-бумеров, рождённое в период с 1955 по 1963 года,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не менее активно, чем молодёжь, делает покупки в интернет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компания Lime. В её отчёт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30,6%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эби-бумеров осуществляют шопинг в интернете. Сред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миллениалов, родившихся в период с 1980 по 2000 год,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35%.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ожилые корейцы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онлайн-магазинов, телемагазинов, сайтов крупных универмагов. Там их привлекает широкий выбор, позволяющий найти товар по наи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и поиске информации 72,5% бэби-бумеров пользуются смартфоном. Более 60% скачивают различные прилож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РК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активно пользуется достижения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KBS World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правят на карантин

Чтобы оградить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рше 65 лет, их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на дому.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24 марта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овещании с участием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гла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и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ут пенсионерам с доставкой продуктов, лекарств и решением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пожилые люд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также 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 В зоне особого риска —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ременно мы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м работу кружков и сек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До сих пор нам удавалось сбереч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меры, чтобы ситуация оставалась такой ж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где открылись пункты сдачи анализов на COVID-19. Первые в очереди — пациенты с ОРВИ, гриппом, пневмонией. Также на экспресс-диагностику отправляют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го месяца выезжали за границу, 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контактировали с теми, кто попал под подозрение на коронавирус.

— Сдать тест могут и сахалинцы, у кого проявляются особо тревожные и даже пани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Пациенты вместе с членами семей находятся в инфек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В Долинской ЦРБ в резерве 200 коек, еще 80 — в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100 мест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лагере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Отметим,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вели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Действует запрет на вс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акрыли театр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инотеатры, отменили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ях.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или 6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закупку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защитных средств.

В островны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действует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сещения. Школы и учрежд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реходят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Руководителям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собственникам бизнеса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ерейти на удален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а также ограничить своим сотрудникам поездки в отпуск и в командировки за границ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и несут лич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дезинфекцию и проветривание помещений, они также должн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своих подчиненных.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иагностике и лечен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ожно по номерам горячей ли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8(800)300-65-03 или 1-300 (добавочный 8).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пустило специальную горячую линию по дистанционному обучению: 8(4242)72-24-14.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со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по телефону: 8(800)201-00-99.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завез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артию овощей, фруктов и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ставки с материка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о, 2-4 раза в неделю. Так, за прошедшие семь дней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доставили свыше 220 тонн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мяса, более 260 тонн овощей и 500 тонн фруктов.

— В оптовом и розничном сегмент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смотря на непростую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асы товаров. На прилавках магазинов представлены все виды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 мясо, молоко и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хлеб, крупы,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и другие товары,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региона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ных опто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хранится более 5 тысяч тонн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и столько же других видов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торговлю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Сахалин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дет ежедне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ассортимента продукции и цен в магазинах.

Так, в I квартале 2020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IV кварталом 2019-го,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оптовой сети наблюдалось снижение отпускных цен на говядину, окорочка куриные, масло растительное, муку, сахар, рис и пшено. Акции на самые ходовые товары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страивают в некоторых торговых сетях. К примеру,

в одном из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гречневую крупу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за 65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сахар — за 45 рублей.

— Я зашла и увидела много ярких ценников с надписью: «Акция». Пригляделась — а это скидки. Взяла себе крупы и чай. Очень довольна, что сэкономила, — поделилась покупательница Василиса Водопьянова.

— Полки у нас всегда полные. Чтобы при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покупателей, мы установили социальную цену на товары, — рассказала управляющая супермаркетом Елена Сучкова.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ятся ассортимент и цены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106 таки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Наценка здесь не превышает 15 процентов без уче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 это в два раза ниже средней по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ном рынке хозяйственных и космет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сегодня также стабильная обстановк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наблюдался повышенный спрос на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но это не оказало существенного влияния на складские запасы. Моющие средства, туалетную бумаг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казывают у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оптовиков каждую неделю.

Сессию Медиашколы на Камчатке перенесли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очная сессия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ёр» переносится в связи с введением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в Камчатском крае из-за угроз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четвертая очная сессия Медиашколы второго набора пройдет с 1 по 4 апре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дискуссий должно было стать обсуждение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РФ.

—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нас сегодня — это забота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и здоровь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Учитывая потенциальные риск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ы всецело поддерживаем инициативу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еренесено.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граничения будут сняты, то очная сессия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ёр»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пройдет с 18 по 21 мая 2020 года, —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Алексей Бабков.

На сессию Медиашколы на Камчатке должны были приехать около 20 федеральных экспертов. Среди них —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роекта Russia Beyond The Headlines Всеволод Пуля,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Г «Минченко консалтинг» Евгения Стулова, эксперт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интернета Тимофей Ви, к.п.н., доцент 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Андрей Зверев,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ТРИТ (телевизионных, радио- и интернет-технологий) факультета журналистики, Институт масс-медиа РГГУ Максим Корнев, эксперт по невербальным коммуникациям Валентин Шишкин, адвокат по правовым вопросам в области медиа Галина Антонец,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стратегии,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аналитики АНО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иоритеты» Юлия Грязнова.

«Медиашко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ёр» —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проект окружного уровня по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е сообщ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блогер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сс-служб.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с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Фонд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За два года в Медиашкол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шесть очных сессий, участие в которых приняло более 600 человек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и дискусс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влекли более 100 экспертов в области СМИ, SMM, медиа права, психологии обще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войн, фотосъемки.

Сахалинский минлес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борются с незаконными свалками

Ведом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обирают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ятиях, которые н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и выбрасывают его на стихийные свалки. Та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грозят штрафы —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90 суток.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ликвидировать на островах все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полигоны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 Борьба со стихийными свалками сегодня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Долгие годы эта проблема не решалась кардинально, справедливо вызывая серьезные нарекания жителей. Это вопрос экологии, а следовательно — здоровья островитян. Большинство ком-

паний, которые не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но при этом его генерируют, располож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лько с начала года их выявлено более 20. К нарушителям мы будем применять самые жесткие меры,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ладимир Корнев.

В число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пал ряд магазино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и клининговых компаний. Предприятиям уже направлены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том, что за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им грозят крупные штрафы или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омним,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15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А всего до июля на островах планируют убрать более 100 таких полигонов.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куда отходы вывозят незаконно, выяв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глегор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Собственникам и пользователям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направили требования о скорейшей ликвидации свалок.

Кроме того,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обращение строительных отход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ли реестр объектов, на которых идут работы по возведению и сносу зданий. Он позволит отследить путь от образования мусора до его размещения и утилиз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более 40 семей заключили социальные контракты

В регионе вдвое увеличили минимальный порог выплаты в рамках соцконтракта с этого год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могут ежемесячно получить от 10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обучение 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ли развитие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ан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как и прежде,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также в виде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до 24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год.

Такой вид помощи стимулирует жителей к преодолению трудностей. Люди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правиться с финансовыми проблемами, выполняя услови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В ней прописывают меры по выводу семьи из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ечение от трех месяцев до года. Получив средства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люди, как правило, открывают свое дело или обзаводятся подсобным хозяйством.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дрей Куторкин использовал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цеха. Там мужчина, ставш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м, наладил производство систем вентиляции.

—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по своему заявлению. Подписали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мне выдали 24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эти деньги приобрёл инструмент, материал. И с этого дня началось моё дело, — поделилс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 2014 года, ког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ч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уже 1780 сем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м выплатили более 3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расчетам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позволил в среднем увеличить доход семей в 2 раза.

—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том, что задействуется потенциал самих получателей, их желание преодолеть матер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Люди сами себе помогают выйти из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Галина Щёктова.

Для заключ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жителей просят обраща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 заявлением и необходимым пакетом документов.

Отделения МФ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и прием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Ограничения введены с 23 марта и связаны с усилением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регионе.

Прием запрос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от граждан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тольк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отделений МФЦ,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писаться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uslugi.admsakhalin.ru), официальном Интернет-сайте МФЦ (mfc.admsakhalin.ru), либо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отделение МФЦ. Вы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будут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Ограничения не касаются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поскольку там отсутствуют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и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ереводить учреждения на иной режим рабо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역방문 가능지역 확대

항공료 지원범위 '사할린'→'독립국가연합'으로 확대

국내에 영주 귀국한 충남지역 사할린 한인의 역방문 가능지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3월 19일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역방문 가능지역과 항공료 지원범위를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온양신문]

김해 정착 사할린 동포들, "마스크 지원에 써달라" 성금

경남 김해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려는 온정이 선순환하면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해시 장유3동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마스크 지원에 성금으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장유3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김해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구입에 써달라며 11일 성금 44만원을 센터에 기탁했다.

앞서 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서 장유3동 사할린 경로당을 방문해 사할린 동포들에게 직접 제작한 천마스크와 손소독제 300세트를 전달했는데, 이에 화답해 성금을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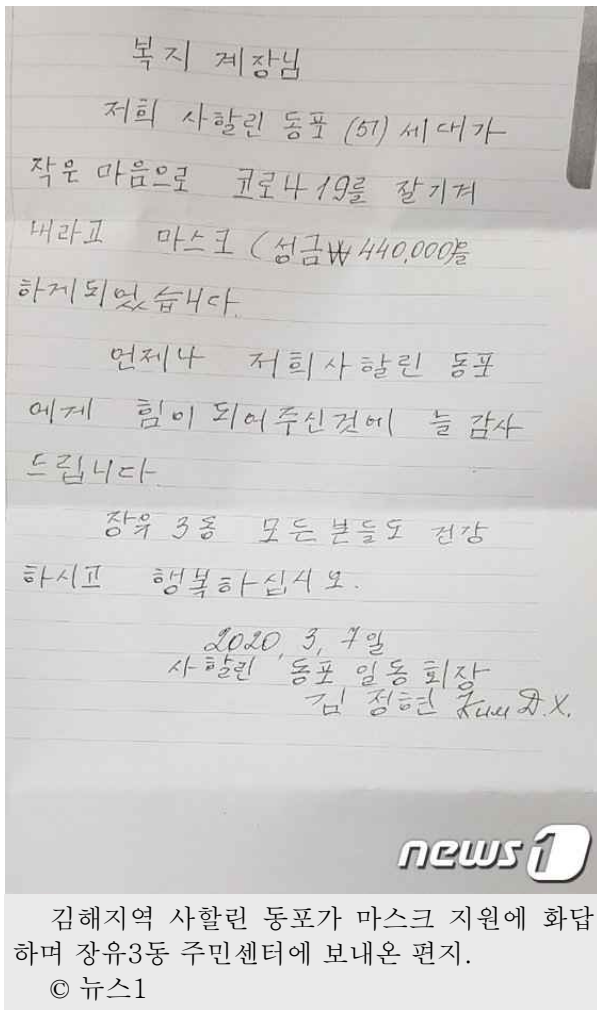
김해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는 총 51세대 85명으로 정부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이주해 현재까지 김해 장유3동 울현주공아파트 12단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갚고 싶다는 정성껏 써내려간 손편지와 함께 성금을 전달해 지역주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김정현 김해 사할린 동포 회장은 "고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민수 김해 장유3동장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정성을 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김해지역 사할린 동포가 마스크 지원에 화답하며 장유3동 주민센터에 보내온 편지.
© 뉴스1

'2020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 여름 진행될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5주간 진행될 이번 연수의 초청인원은 30명이며 참가대상은 CIS지역 고려인 한국어교사(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 한국어강사 포함)다.

이번 연수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참가신청서 1부(한글 자기소개서 포함) ▲재직(경력) 증명서 1부(자유양식, 재직기간 입력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한글) 1부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공관에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수는 크게 강의, 체험 및 실습, 기타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강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 능력별 교육,

한국 역사/문화 교육 등이 진행되고, '체험 및 실습' 순서에서는 지역문화체험·한식체험·사물놀이체험, 문화공연관람 등 한국문화체험과 교안 및 교구 만들기·모의수업·학교 수업 참관 등 교육실습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이밖에도 개·폐회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숙달도 평가, 설문지 작성 및 소감 발표 등 활동에도 더불어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참가인원 모두에게 국제선 항공료(왕복, 일반석) 및 연수기간 내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자 확정 통보는 4월 중 관할공관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 관련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82-64-786-0265)로 하면 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달다]

디귤 이야기

디귤은 다른 한글의 자모와는 달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모두 두 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디귤만 기역으로 시작하는 '귤'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서 받침에 디귤이 들어가는 한자를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한자에도 디귤이 받침인 말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침에 디귤이 들어가는 우리말 중에서 다시 찾게 되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받침이 디귤인 말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귤'입니다. 지금은 소리가 달라졌지만 '끝[末]'의 옛말입니다. 디귤에 끝의 의미를 담은 말(末)을 쓴 것은 디귤의 느낌에 마지막의 느낌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끝을 받음해 보면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원래의 생각을 살려 '디은'이라고 합니다. 남북한에 부르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귤 음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즉, '소리'의 느낌이 납니다. 좀 '딱딱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두드리는' 소리의 느낌이 나고, '뛰고' '달리는' 느낌도 납니다. 지금 쓴 단어에도 디귤이 한 가득이네요. 아무래도 디귤은 울림소리가 아니고 단한 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 겁니다. 하나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할 때는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부딪치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도 소리가 나죠. 특히 빠르게 움직이면 소리가 더 크게 납니다. 세상의 소리 중 디귤과 쌍디귤으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떤 느낌이 날까요?

디귤이 소리라고 한다면 의성어(擬聲語) 중에 디귤에 해당하는 예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길게 이어지는 음보다는 끊어지는 음에 많을 것 같습니다. 북소리나 장구소리 등 타악기를 표현하는 소리에 디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북소리는 '둥둥' 울립니다. 장구소리를 구름으로 표현하면 '덩 덩 따 쿵 따'라든가 '따 구 쿵 따 쿵 따 쿵'처럼 표현이 됩니다. 쌍디귤 소리는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짧게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덩에 비해서 '따'는 더 짧게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장구채로 치는 소리로 긴 소리가 아닙니다.

'딱'이나 '뚝'의 느낌도 비슷합니다. 시계소리를 '똑딱똑딱'이라고 표현한 것도 소리의 울림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뚝뚝'에는 받침의 기역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빗소리의 '후두둑'이나 빨리 움직이는 '후다닥'에서도 디귤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끊어지면서 서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빠른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체부위 중에서 '다리'가 디귤으로 시작합니다. '달리다, 뛰다'도 모두 디귤으로 시작하는 어휘입니다. 후다닥 뛰고 달리는 다리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촉감으로 보자면 디귤은 아무래도 굳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닥다닥,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굳어 있다 보니 딱딱한 느낌도 납니다. 한편 디귤으로 시작하는 의성어와 촉감에 해당하는 표현이 연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딱딱한 것에 부딪치면 딱 소리가 나니 말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도 디귤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보이거나 돌이나 땅이 디귤과 연관이 됩니다. 돌은 돌이나 달과도 관련이 됩니다. 모두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딛다'와 '굳다'의 받침이 디귤인 것도 느낌을 보여줍니다.

저는 디귤을 보면 북소리가 들리고 장구소리가 들립니다. 둥둥둥, 따쿵따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더 뛰게 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북소리를 들려주면 응급 상황을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북소리가 심장박동을 닮았기 때문이겠죠. 전쟁터에서 북소리를 울리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심장을 뛰게 하여 힘을 북돋는 것이죠. 디귤 소리 속에서 우리 모두 더 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 방면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연해주 39위, 유테인 자치구 31위, 아무르주83위, 추코트카 자치구 80위 등을 차지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사할린주는 극동 연방구 중 다른 지역들을 현저히 앞질러 몇 년째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Сахалин попал в топ-5 Минтруда за малое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и активно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подростк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идируе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качеству и доступности госуслуг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Таковы итоги мониторинга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за прошлый год. По оценкам ведом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в рейтинге пя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в мониторинге учитывалась общая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госуслуг, а также имиджев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лужб занятости.

По ряду показ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ак, по доле безработных, обратившихся в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в поисках подходящей работы, 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торое место.

Традиционно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о доле решивших занять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м.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седьмой сахалинский безработный в 2019 году прошел обучение, переобучение или повысил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центров занято-

сти. По доступности эт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услуги регион занял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среди 86 субъектов РФ.

Также Минтруд признал успешной работу по временном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18 л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тала второй в стране.

В целом в рейтинг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начительно опередил коллег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занял 21-е место,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 31-е место, Бурятия — 32-е место,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39-е место, Якутия — 45-е место,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50-е место,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70-е место,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 71-е место,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80-е место,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 83-е место.

В пятерке лидер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веренно держит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사할린의 여배우,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가곡 경연대회에서 2 위

체호브 센터의 여배우 마리나 세메노바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노래하라, 제비여, 노래하라!> 제 2회 전국 극중 가곡 경연대회에서 마리나가 부른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노래가 2위를 차지하여 갈라 콘서트 목록에도 올랐다. 이 노래는 자크 브렐의 유명한 곡에 맞추어 가사를 쓴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국에서 수백 개의 신청서가 경연에 제출된 가운데 경연에는 인형극장 배우들, 드라마 배우들, 예술 전문대학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체호브 센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두가지 공연작품을 소개해 통신으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중 100명의 참가자를 선정, 경연 조직위원회는 3월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 무대가 개최되는 예카테린부르크로 초청했다.

3월16일 아동 필하모니홀에서 열리는 갈라 콘서트에 오른 공연 목록은 총 15 개였다.

Сахалинская актриса завоева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песн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Актриса Чехов-центра Марина Семенова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актерской песн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Пой, ласточка, пой!». Песня «Что мне до тебя...», с которой актриса вошла в гала-концерт фестиваля, завоевала 2-е место.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Марина сама написала текст песни на известную музыку Жака Бреля.

На конкурс подал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заявок со всей России.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лись драматические актеры,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кукол,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актер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Чехов-центре,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заочно представил на конкурс музы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з двух номеров. Отобрав почти 100 лучших из них,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пригласили актеров в Екатеринбург, где с 14 по 15 марта состоялся оч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В гала-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16 марта в Екатерининском зале дет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вошло всего 15 концертных номеров.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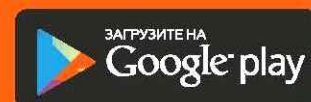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